

지역 소식통

고창 6.25양민 희생자 합동 위령제

고창군 6.25양민 희생자 제전위원회가 5일 공음면 선동리 선산미을 위령탑 광장에서 합동 위령제를 개최했다.

위령제는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그리고 유가족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혼, 농악을 시작으로 제례, 현화·분향·추념사·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위령제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통한의 세월을 감내하면서 진상규명과 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령제를 통해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원하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위령과 명예회복에 동참하는 교훈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하서면 양지마을, 식목일 행사

부안군 하서면은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5일 장설리 양지마을 회관 및 도로변에 경관 및 아름다운 마을을 꾸기 위해 철쭉과 등반나무를 심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 따라 미을 주민들을 비롯하여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원, 문숙자 하서면장 및 직원 등 50여 명이 철쭉 800주와 등반 200주를 식재했다.

양지마을의 식목일 행사는 미을 주민 출신인 이복조등학교 24회 동창회, 한울티리회 및 하서면자율방범대에서 묘목 대와 식재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 더더욱 식목일의 의미를 빛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서, 대형버스 운전기사 교통안전교육 실시

고창경찰서는 5일 고창군 선운사 체험학습에 참여한 진건고등학교 학생수송 전세버스 운전기사들 대상으로 음주측정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과속·신호위반·종류운전여부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또한 승차한 학생 및 교사 등 180여명의 안전띠착용을 점검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이선교(소장) 경감 죄형대는 “봄 헛락철 선운사를 찾는 학생수송용 전세차량에 대하여 수시로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개선 공모사업

정읍 전통한옥 3개소 선정

6억원 투입 시설 개보수, 체험형 한옥숙박시설로 조성

정읍의 대표적 한옥숙박시설 3개소가 전북도가 주관한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 시비 1억6000만원과 자부담 2억4000만원 모두 6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보수 등을 나선다고 밝혔다.

신외면 규당고택과 상교동 안진사고택이 지난 2월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3월에는 송침봉조선동네가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규당고택과 안진사고택에 각각 1억원(국비 5천, 시비 3천, 자부담 2천)을 투입해 보일러와 전기 등 내부시설 개선과 객실 확충 등을 통해 우수 중저가의 숙박시설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송침봉조선동네에는 도·시비 2억, 자부담 2억 등 4억원을 투입해 너와집 3동을 신축하고 기준 초기가격 17동을 너와 지붕으로 새롭게 단장해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정읍에는 공공·개인 운영하고 있는 8개소의 한옥 숙박시설이 있어 정읍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편 규당고택은 평사낙안(평평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모양의 명당으로 꼽히는 산의면 평사리에 있다. 규방기사문학으로 유명한 소고당고단 역사가 살았던 고택이다.

국립공원 내장산과 10km 거리에 있는 안진사고택은, 2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정읍시의 발상지인 정해마을에서 안첨판의 샛제 아들로 태어나 철종 때 동지증주부사(同知增主簿事) 등을 지낸 안덕필(1795~1885, 안진사)이 지

었고, 괴적하면서도 전통 한옥의 멋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인기가 높다.

김생기시장은 “편리하고 쾌적한 한옥숙박시설 확충에 주력해서 귀리떡 갈비 등의 정읍의 먹거리, 구절초데 미공원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그리고 벚꽃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정읍을 사계절 토탈관광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쌀 천년의 솜씨·침봉

국가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전북도 부안군의 청정해풍을 머금고 자란 부안 쌀 천년의 솜씨와 부안침봉이 5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중앙일보 미디어네트워크와 브랜드인터넷서클 글로벌경쟁력 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17 국가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의 산업·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부문별 최고의 국가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부안 쌀 ‘천년의 솜씨’가 쌀 부문에서 1위, 부안침봉이 오디(뽕)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됐다.

부안 쌀 ‘천년의 솜씨’는 품질 좋은 쌀을 제공하려고 토양관리부터 적기 수확까지 까다로운 심여 가지의 재배 기술을 담은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고, 생산에서 포장단계까지 위생요소를 관리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제도인 GAP 인증을 받은 쌀만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시양 산업이었던 양집산업을 기능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선정, 뽕·기반 시설에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부안군 대표 관광지인 누에이터운파, 침봉연구소 및 가공연구센터, 제협장 등을 조성하여 부안 뽕 6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디와 뽕잎 누에를 이용한 솔·음료·뽕잎 차·소스·파자류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부안군 광산산업과 연계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을 계기로 부안 쌀 ‘천년의 솜씨’와 ‘부안침봉’이 대한민국 대표 명품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저학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6년 8월 1일 이후 한국장학 재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의 율혜 이자(2.5%) 발생 분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5일 전했다.

군은 지난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은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부모의 시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고창군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게시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13일 임정섭 작가 초청 강연
‘쉽게 배우는 서평쓰기 전략’

정읍시가 오는 13일 임정섭 작가 초청 강연을 갖는다.

시는 책 읽는 정읍, 건강한 도시를 위한 지속적인 독서운동으로, 독서 후 서평쓰기 전문 강사인 임정섭 작가를 초청해 당일 저녁 6시 40분에 정읍시립중앙도서관에서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정섭 작가는前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기자로 활동했고 삼성경제연구소와 국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전국 공무원연수원 등 여러 기관과 EBS, CBS, SBS 등 다수 방송업체에서 글쓰기 코칭을 해왔다.

또 서울 정독도서관과 대구중앙도서관, 순천시립도서관 등 전국 도서관에서 사서를 위한 서평 쓰기 강연을 진행했다.

현재는 책 전문뉴스 ‘북데일리’의 대표이자 지식문화경제신문 ‘하이트레이퍼’ 대표, 글쓰기 훈련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inking 씽킹: 나는 왜 아이디어가 없을까(루비박스 2016), Simple 심플: 세상에서 하나뿐인 글쓰기 공식’(다산 2015), 글쓰기, 어떻게 쓸 것인가(경향BP, 2012) 등이 있다.

임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정읍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독서미리틀대회 참가자들의 독서 기록일지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쉽게 배우는 서평쓰기 전략’을 주제로 책읽기와 글쓰기, 그리고 생각 표현하기와 서평의 구조 작성의 기본 원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강연에 따른 사전 접수는 없으며 장소는 정읍시립중앙도서관 1층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립중앙도서관(539-6435)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인구 15만 회복 추진 계획 보고회

“인구는 경쟁력입니다. 정읍인구 15만 회복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속적인 자연 인구 감소 위기를 맞아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 정읍인구 15만 회복에 나서고 있는 정읍시가 지난 4월 2017 인구 15만 회복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6개 국·단·소장과 56개 과소·5·6연동장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시정 전 분야를 정읍인구 15만 회복에 중심을 두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총무과장이 지난해 인구 회복 시책 추진 현황과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했고, 각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할 총 69개의 인구 회복 시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다원시스 투자 유치와 철도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갖춰져 정읍의 인구 늘리기 전망은 밝다”면서도 “하지만 갈수록 회복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단순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정직히 인식하고 올해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여성 친화적인 보육과 교육 환경 조성 등에 주력해서 저절로 찾아오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정읍을 만들어 정읍 인구 15만 회복의 터坦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더욱 더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봉주를 선택했습니다.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봉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미를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너머로 놓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송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은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친환경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부안 강산봉주
Premium Ohdi Wine

GIFT SET 1호 | 750ml 2ea/13% |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